

“자연사랑·모험심 배워요”



올해 교계의 청소년캠프는 가슴이 탁 트이는 기암절경 속에서 급류를 헤쳐가며 살아숨쉬는 계곡의 비경을 한껏 느껴볼 수 있는 탐사·탐험캠프와 문화유적지 답사캠프가 주류를 이룬다.

교계 ‘청소년캠프’ 다양

30도를 오르내리는 뜨거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캠프가 준비되고 있다.

교계 청소년 및 신행단체에서 개최하는 청소년캠프는 유적지탐방, 레저·자연체험, 동굴탐사 등 보편적인 프로그램에 불교적 이념을 적절히 가미해 차별성을 두고 있어 특색, 때문에 타종교인 또는 무종교인, 초심자까지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다.

임시위주의 학교공부에서 벗어나 자기가 갖고 있는 특기를 마음껏 살릴 수 있고, 포교의 기회로도 삼을 수 있는 청소년캠프에 친구들의 손을 이끌고 참여해 보자. 예년에 비해 올해는 국제적인 감각을 익히고, 문화유산

동굴탐험·전래놀이 등에 불교접목 캠프마다 환경보호운동 필수코스

공부중압감 해소·감성지수 높일기회

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국제캠프 및 유적지탐방 캠프가 다양하게 마련돼 눈길을 끈다. 또 대자연과 호흡하며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는 탐사·탐험캠프도 열린다. 날로 심각해져가는 환경문제에 대한 위기감을 반영하듯 각종 캠프에 환경보호운동과 캠페인도 감초처럼 끼어 있다.

특히 현대불교신문이 주최하고 조계종 포교원이 후원하는 불교탐험학교는 한국탐험학교의 전문 탐험가팀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특징. 동굴탐험 래프팅(급류타기) 등 원시경험을 통해 자연과 자아의 원초적 동질성을 느끼면서 ‘불성’에 대한 확신을 함께 심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동청소년회관의 ‘역사유적지캠프’는 박혁거세 탄생지에서 포석정까지를 돌아보며 통일신라 건립이전부터 멸망까지를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식으로 배울 수 있다. 선재마을의 전래놀이 캠프는 휴내 가득한 자연 속에서 어린이들의 감성지수(BQ)를 자극한다. 공기놀이, 실뜨기, 칠교놀이, 비석치기, 긴줄넘기, 고무줄놀이 등 전래놀이 속에 깃든 불교문화를 감상할 수 있다.

도필선 기자

단체	참가대상	기간	장소	전화
현대불교신문 탐험학교	초등4~고등2	7/20~8월말	월정사, 정선, 평창, 용평일대	09)7738-0997
청교원 국제캠프	중·고등 국내 중·고등 국외	7/31~8/4 7/31~8/6	제주 김녕해수욕장	02)735-8165
파라다이스 연합캠프	중·고등	8/8~8/11	고성 김바리수련장	02)723-6165
우리는서우 여름캠프	중·고등	8/2~8/5	경기도 용두암수련원	02)278-8672
선재마을 어린이캠프 청소년캠프	초등·중·고등	8/14~8/16 7/18~7/20	범주사(예정)	02)433-1507
목동청소년회관 역사유적지캠프 해외캠프	초등3~중·고등	7/24~7/27	경주일대 일원 유적지	02)646-6819
덕유사(해복사) 청소년캠프	초등5~고등	8/11~8/13	다보수련원	032)325-2161
법동중(사리사) 아동캠프 자원봉사캠프	초등 중·고등	7/24~7/25 8/9~8/10	서대산(제대산) 순천생태자연관	042)633-1141
공공중(사리사) 여름캠프	중·고등	7/28~7/30	지리산(예정)	051)363-2063

“팔정도 청소년 심성교육을”

김정호교수, 종교교육학회 학술대회서 주장

청소년 심성교육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불교심성교육의 원형은 팔정도와 삼법인에 압축돼 있으며, 그 가르침과 실천방법의 현대화를 통해 청소년심성교육의 방향이 모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종교교육학회(회장 박선영)가 20일 원광대학교에서 개최한 97년 춘계 학술대회에서 덕성여대 김정호교수는 ‘불교에 있어서 청소년의 심성교육’이라는 주제



“지혜·자비·자주성 갖춰야 바른 심성” “진로상담·명상프로그램 개발 서두르도록”

◇김정호교수

논문에서 청소년 심성교육에 있어서의 불교의 역할과 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통해 ‘삼법인과 팔정도로 귀착되는 불교의 심성교육을 청소년들의 근기와 정서에 맞게 현대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불교에서 바람직한 심성은 지혜와 자비, 자주성을 고루 갖춘 이상적 인간상에서 보여주는 마음의 특성”이라며 “불교에서의 심성교육은 삼법인을 통해 지적으로 존재의 실상을 비로게 알도록 한다. 또 팔정도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바르게 살아가며 동시에 명상수행을 통해 체험적으로 존재의 실상을 알도록 하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김교수는 “불교에서 바람직한 심성은 지혜와 자비, 자주성을 고루 갖춘 이상적 인간상에서 보여주는 마음의 특성”이라며 “불교에서의 심성교육은 삼법인을 통해 지적으로 존재의 실상을 비로게 알도록 한다. 또 팔정도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바르게 살아가며 동시에 명상수행을 통해 체험적으로 존재의 실상을 알도록 하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말이 노화를 방지한다? 예전에는 귀한 곡물이어서 밀정병 유행과 같은 별식이나 간식 또는 누룩과 같은 특수한 용도로 쓰였던 것이 6·25사변 이후 국수 수제비와 같은 형태로 주식대용이 된 밀. 강원대 한국영양과학연구소가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밀은 △면역증강 △항산화작용을 통한

우리밀 노화방지 효과 항산화 작용...면역·간기능개선

강원대 영양과학연구소 발표

항노화 △간기능 개선에 뛰어난 효능이 있다고. 한국밀은 수입밀에 비해 2배의 면역증강 효과와 과산화 최종 생성물인 MDA(malon dialdehyde)를 50%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현대불교신문과 종단협소비자보호회, 맑고향기롭게모임이 공동으로 28일~29일 불은사에서 여는 재향유업시장에서 밀을 이용한 다양한 먹거리를 맛볼 수 있다.



현대적 감각 조형미 탁월

향로는 가정에서 제사를 지낼때나 불기에서 불보살에게 향을 공양할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그래서 향로는 향을 피울 때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향로는 좋은 실내장식 소품이 될 수 있다.

기존의 정형화된 느낌에서 벗어나 구리, 황동, 철, 은, 나무, 분청 등의 재료를 사용, 작가들이 현대적 기법으로 조형해 세련된 멋과 예술적 감각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

탁자나 선반위에 올려 놓고 은은한 향을 피운다면 나쁜냄새도 소멸되고 집안 분위기도 한결 아늑해질 것이다. (02)722-9601

만화 백야경

이향원

상처에 말뚝을 바른 사람
옛날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 왕에게 심한 매를 맞았다. 그는 상처를 빨리 낫게 하려고 말뚝을 박았다.
그 깊은 상처에 말뚝을 왜 박는 거요?
이런 상처에는 말뚝이 특효 약이래요.
그게 정말이요?
헛기어질 정도로 말뚝이 최고지요.
이렇게 좋은 치료방법이 있는 줄 모르고 있었다니.
아들아 피가 나도 목 나를 때려라.
아버지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특효 약이 있으니까 열려 받고 때려.
아이쿠 죽겠다.
이 일부러 상처를 내어 말뚝의 효험을 보려는 어리석은 자와 다를 바 없다.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이 不淨觀을 닦으면 곧 五蘊의 몸의 부수음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부정관(不淨觀) - 인간의 몸이 추하고 더러운 것을 관찰하여 탐욕의 번뇌를 끊는 수행법
그러나 더러운 것은 보지 못하고 도리어 여색에 홀리어 생사에 홀려 다니다 지옥에 떨어진다.
오온(五蘊) - 색(물질) 수(감각) 형(생각) 행(행위) 무(의식)

‘불자의집’ 교패붙이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우리는 흔히 2천만 불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2천만의 불자 모두가 스스로 불자임을 자랑스럽게 말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스스로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불자로서의 긍지를 갖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불자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자부심은 나와 이웃이 더불어 사는 이 세상을 부처님 세상으로 바꾸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본 감로기획에서는 현대불교신문사, 법보신문사의 후원으로 「불자의 집」 교패 붙이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 운동은 불자 스스로가 자긍심을 갖고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앞장 서겠다는 서원의 실현이기도 합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 크기 : 6cm×7.5cm
크기 : 3.5cm×10.5cm

특징
1. 원색칼라로 제작하였습니다.
2. 표면에 예폭시 처리하여 탈색의 염려가 없습니다.
3. 반영구적입니다.

※ 300개 이상 제작시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 보급가 : 1개당 1,000원

감로기획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전화:(02)723-4306·7 팩스:(02)738-8682

우란분절법회 · 칠석법회 설법자료 및 법보시 책자 보급 안내

우란분절과 효이야기

우란분절 법회 및 발원문, 백중기도와 부모님을 위한 발원, ‘효’에 대한 부처님의 한결같은 가르침, 영원한 사랑이야기...칠석 등을 신도님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 미리 보냄으로써 법회동참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으며 철원철석과 우란분절에 절에 오시는 신도님께 좋은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수 록 내 용

제1부 우란분절 기념 법회
우란분절 법회/우란분절 발원문

제2부 백중기도와 부모님을 위한 발원
목련의 효행과 우란분절의 시작/우란분절과 백중/거룩한 효심, 뜨거운 실천

제3부 ‘효’, 부처님의 한결같은 가르침
경전에서 보는 효의 말

제4부 영원한 사랑이야기...칠석
그리움으로 사는 삶·견우와 직녀/자손위한 사랑으로 회향하는 기도...칠석불공 철성부적으로 이어지는 끊없는 기도/철원성군 진언과 부작

◆ 200권 이상 주문시 책표지에 사찰명을 넣어 드리고, 법회안 내, 법보시자 명단을 추가로 인쇄하여 드립니다.
◆ 법보시 가격/각 권당 1,500원
◆ 크기/신국판, 80페이지

우란분재와 칠석이야기 정가/1,500원
우리말 부모은중경 · 우란분경 · 목련경 정가/1,500원

감로출판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02)723-4306~7, 팩스(02)738-8682